

한국 언론이 기후위기를 다루는 방식

진민정



- ✓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현황과 개선방안»(2021)
- ✓ 23인의 학계, 시민단체, 언론현장 전문가와의 인터뷰
- ✓ MZ 세대 젊은 독자와의 집담회
- ✓ 2,000명 수용자 설문 조사
- ✓ 전문가와 수용자가 바라 본 한국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의 증가→ 전 세계에 실질적인 위협
- “이제 인류는 공동대응 혹은 집단자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 기후위기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가장 도전적인 문제이며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
- IPCC 6차 보고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
“언론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기관”





가디언(The Guardian), 2019년 10월, 환경 서약

Support The Guardian

Contribute

Subscribe

The Guardian's
environmental pledge 2019

We believe

that the escalating climate crisis is the defining issue of our lifetimes and that the planet is in the grip of an emergency. We know that our readers and supporters around the world care passionately about this too, as so many of you have told us

Tue 15 Oct 2019 15:00 BST

The graphic features a large, stylized fountain pen nib in the center, with a globe of the Earth integrated into the nib's body. The background is a solid yellow color. The text 'We believe' is written in a large, bold, black serif font, with the pen nib acting as the letter 'e' in 'believe'. Above the nib, the text 'The Guardian's environmental pledge 2019' is written in a smaller, black sans-serif font. Below the nib, a paragraph of text explains the pledge, and at the bottom, the date and time 'Tue 15 Oct 2019 15:00 BST' are displayed.



❖ 가디언의 환경 서약 주요 포인트

- 상업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 받지 않고, 과학적 사실에만 근거를 두고 보도
- 탄소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기후불평등에 대한 탐사보도
-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어 사용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신 ‘기후비상’(climate emergency),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붕괴’(climate breakdown), 또는 ‘지구가열’(global heating) 사용
- 2030년까지 넷제로 달성
- 화석연료 채굴 기업의 광고 심지 않을 것



❖ 기후위기 대응 위해 나선 프랑스 언론인들

- 생태 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헌장
- 위기를 한정된 섹션에 국한하지 않고 횡단적인 방식으로 다룰 것
- 대중에게 엄밀하게 검증된 관련 지식을 제공할 것
-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사용된 어휘와 이미지를 확인할 것
- 환경 및 기후 문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제시된 해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
- 언론 스스로 저탄소 저널리즘을 실천할 것 등을 비롯 13개 조항
- ▶ ‘Don’t Look Up’의 시나리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



- <AFP>, 2019년, 기후변화는 뉴스룸의 ‘우선순위’ → ‘지구의 미래’ 서비스
12명의 환경전문 저널리스트+ 18명의 다양한 저널리스트+ 팩트체커
- <르몽드>의 ‘지구’ 섹션, 2019년 재정비(12명→22명)
- “기후변화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다. 즉, 기후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탈성장, 자본주의, 불평등, 이민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시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보도에는 이 위기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응에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등 ‘기후정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한다.”
(Simon Rog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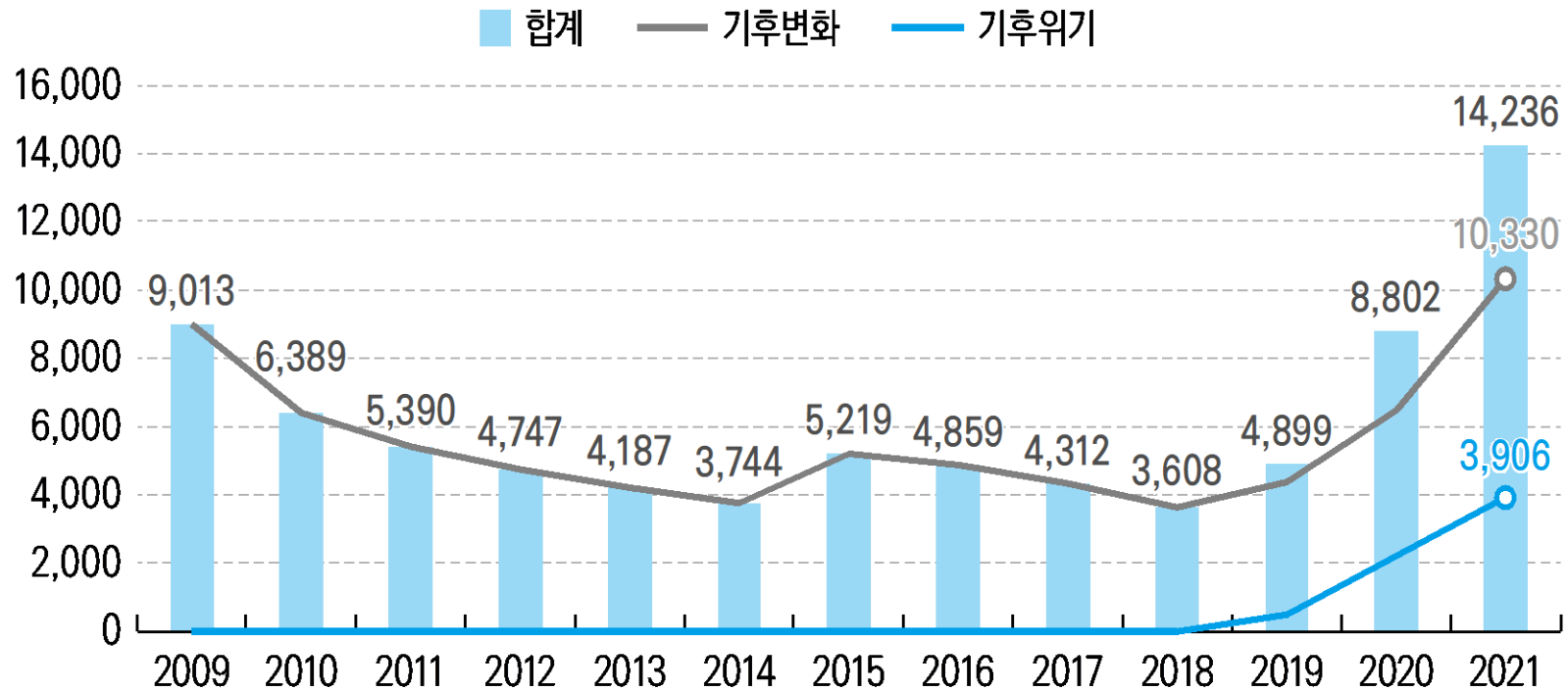


❖ 언론에서 기후변화 보도의 위치

- 해외 언론, 기후변화 보도가 횡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확대
- 언론사 리더십들의 기후 인식 변화 → 기후변화 전담조직을 두고 활발한 지원
- 저탄소 저널리즘 실천(탄소중립 규제준수-언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국내 언론, 기후위기 분야는 여전히 환경이나 과학 분야의 영역이라 인식
- 기후변화팀, 기후대응팀의 등장
- “환경이 기본값”인 기자들의 증가 → 기후변화 보도량의 증가



2009~2021년 중앙·경제·전문지 기후변화·기후위기 검색





❖ 기후변화 보도의 특수성

- 가능성의 영역. 기존 저널리즘 문법에 담기지 않아
- 간영역적 특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거대한 이슈!
→ 전담조직 및 과학적 소양을 갖춘 리더십 필요



❖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문제점

- 정치인·기업인의 책임을 묻는 기사를 보기 힘들
- 기상 이변이 잦은 여름과 겨울에 기사가 집중
- 외신을 인용, 강 건너 불 보듯 보도
-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여 보도
- 경제성장형 가치관이 기후위기 보도에도 그대로 투영
- 소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혹은 검증 없이 인용
- 언론사가 한 지면에 전혀 다른 관점의 기사들을 보도
- 보도자료에 의존해 유사한 보도를 남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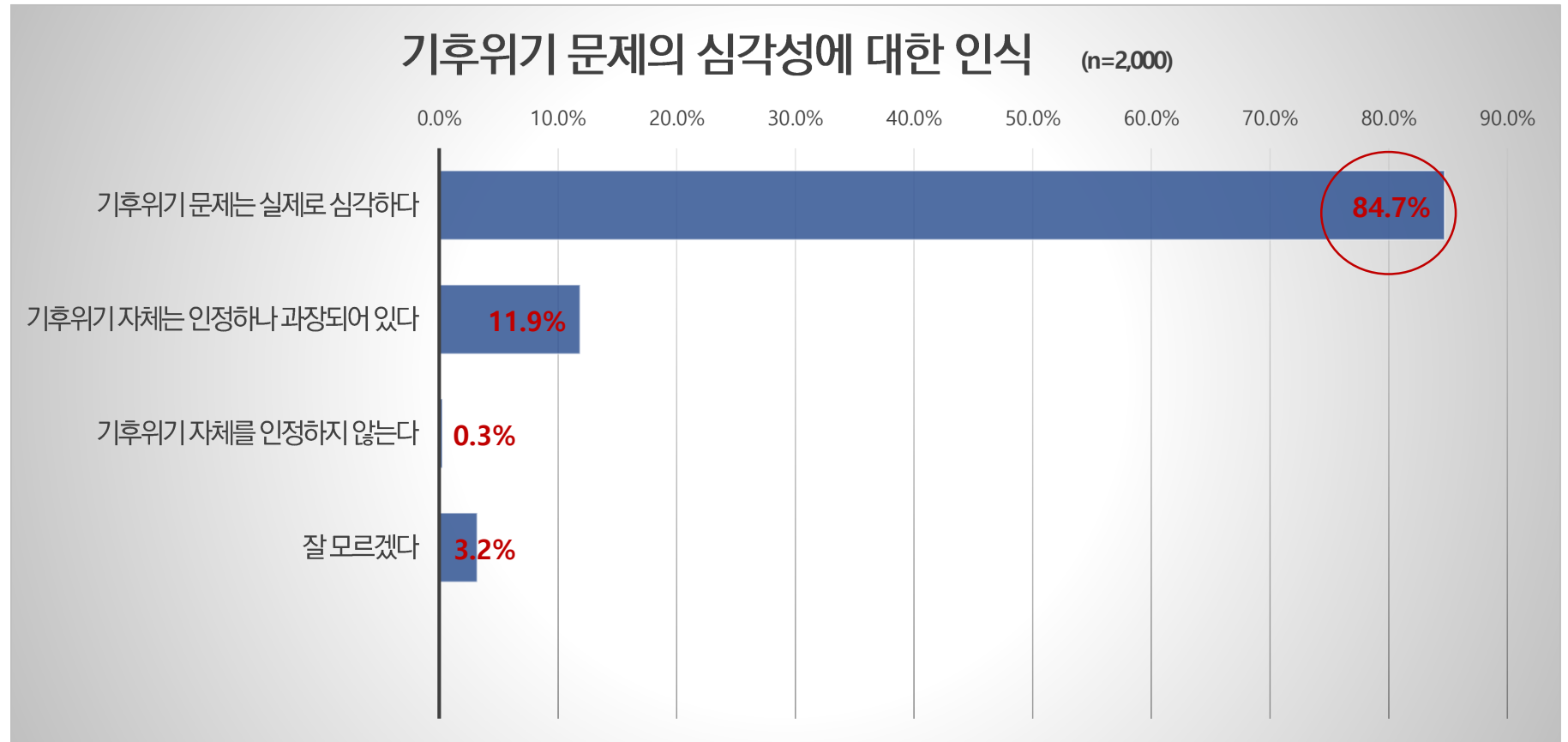
기후변화 보도에 대한 수용자 인식 조사

일시: 2022년 10월 19일~10월 28일

대상: 10대 후반~60대 수용자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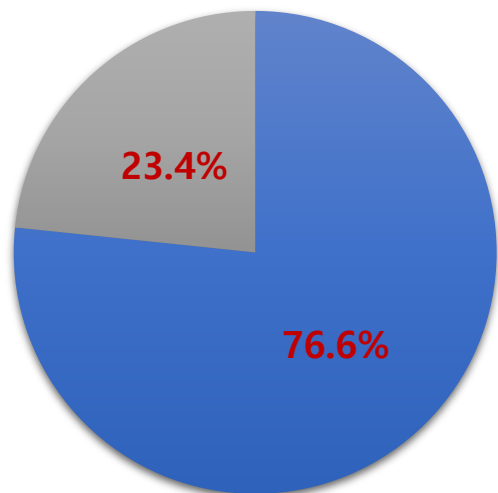


- ✓ 기후위기 문제 심각하다!
84.7%
- ✓ 기후위기 인정 하나 과장되어 있다
11.9%
- ✓ 기후위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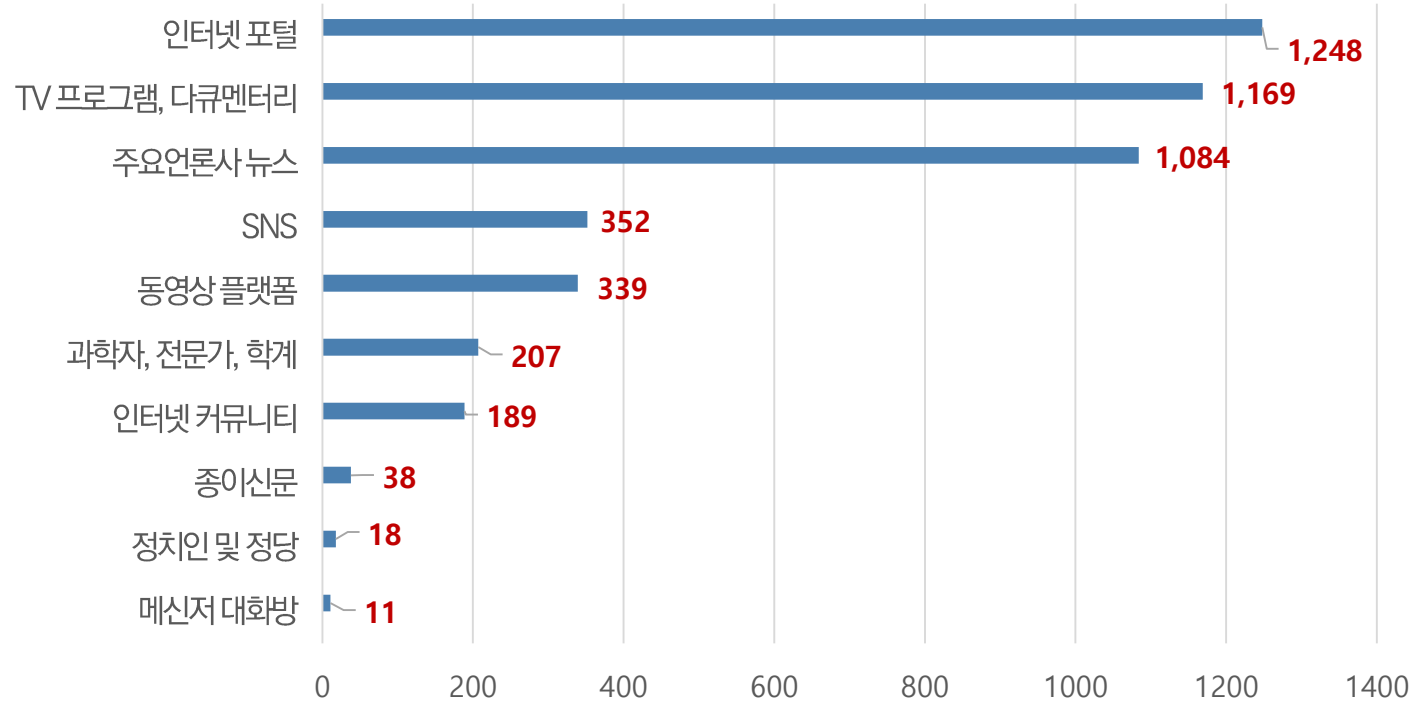
기후변화 보도에 대한 관심 (n=2,000)



■ 그렇다 ■ 아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이용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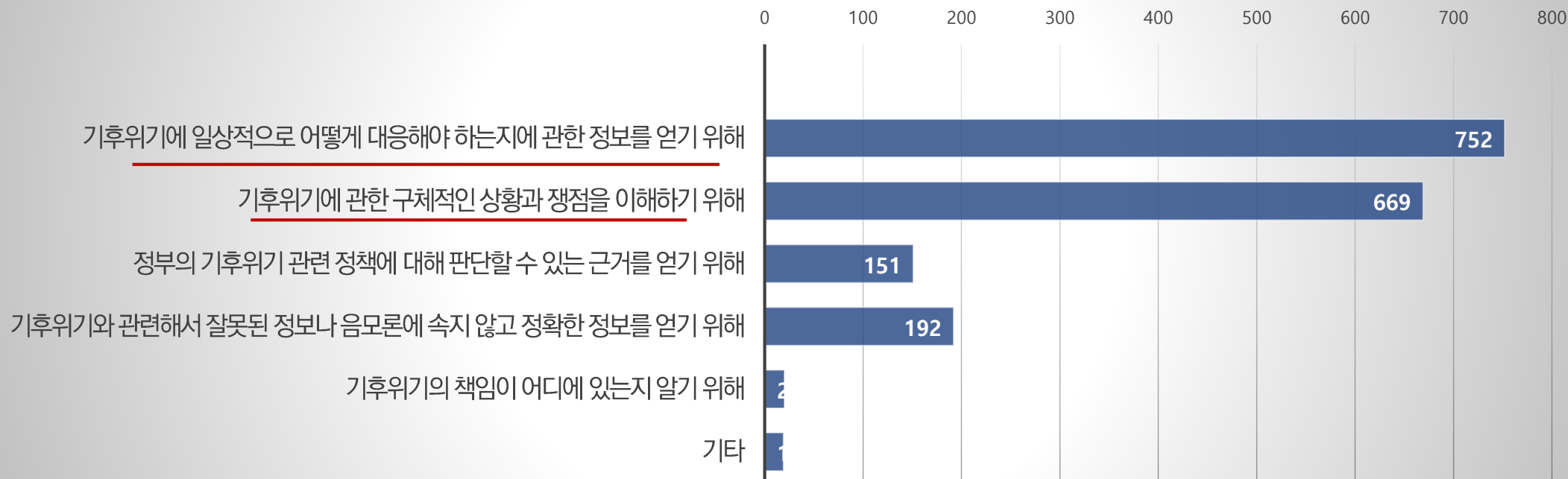
(n=2,000,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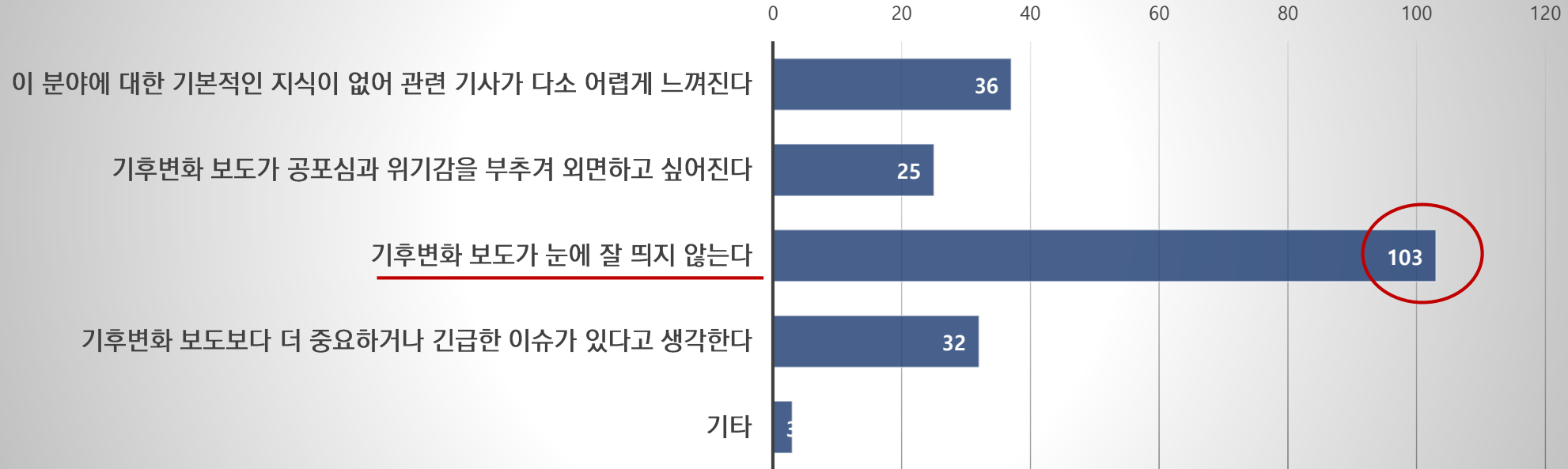
기후변화 보도를 보는 이유

(n=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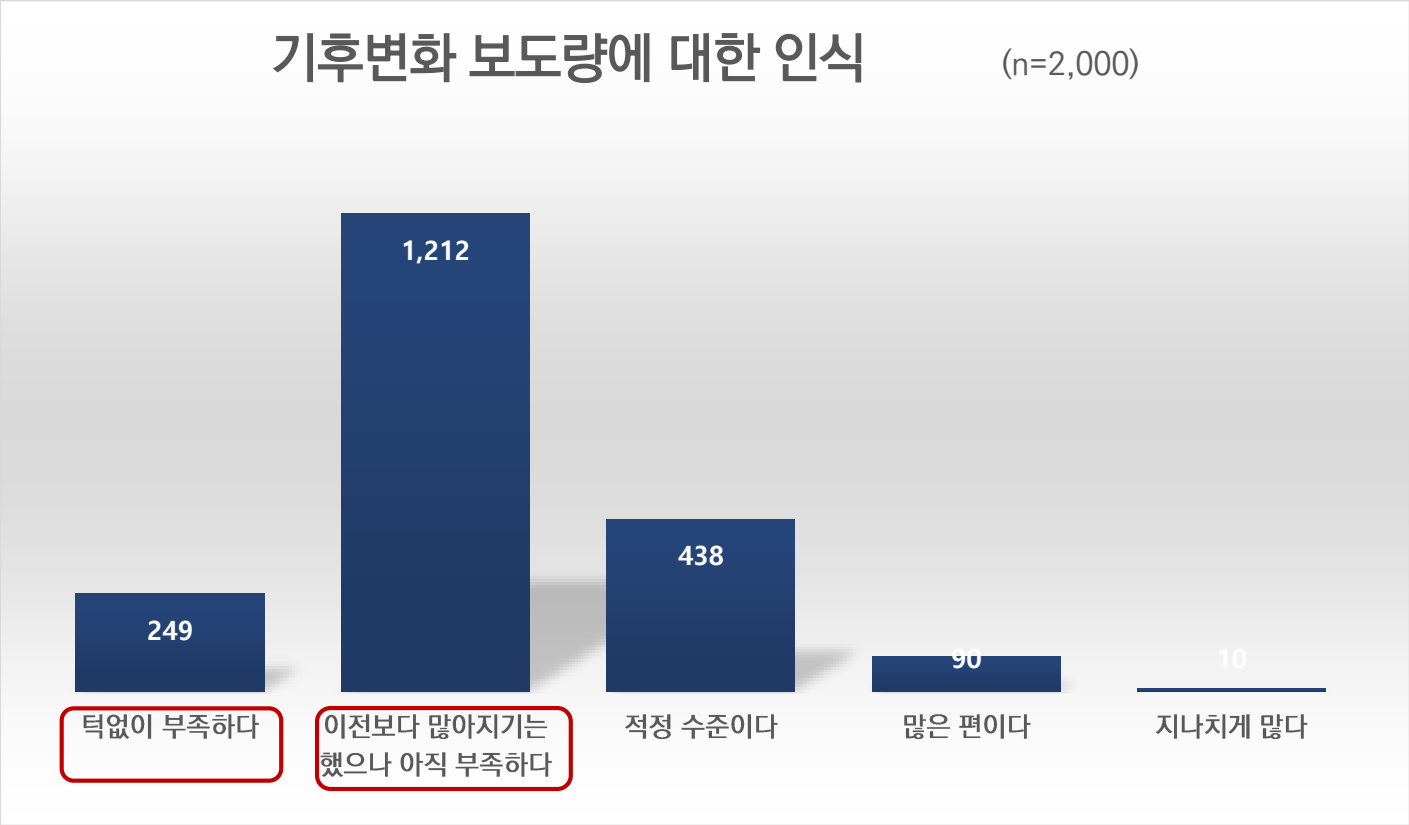


기후변화 보도를 보지 않는 이유 (n=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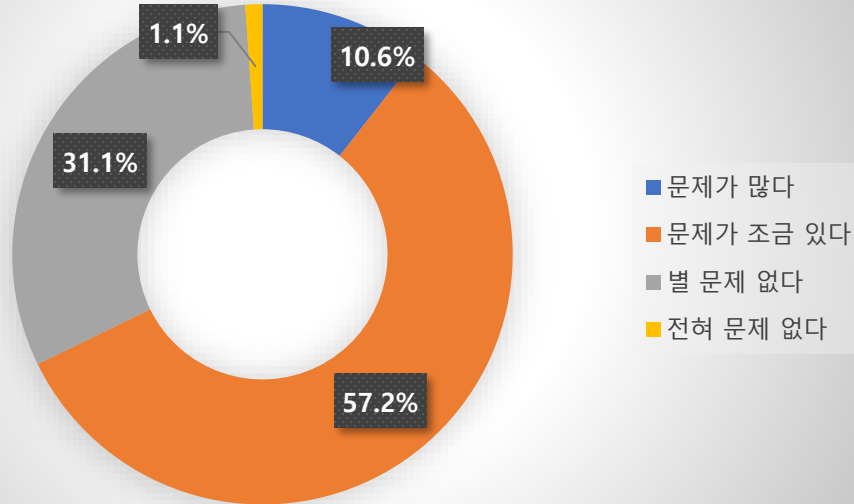


- 기후변화 보도량
- ✓ 부족하다 73.1%
- ✓ 턱없이 부족하다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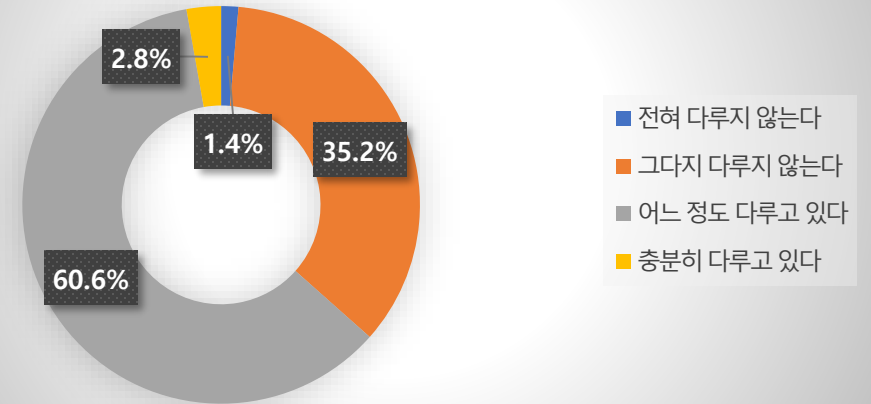


국내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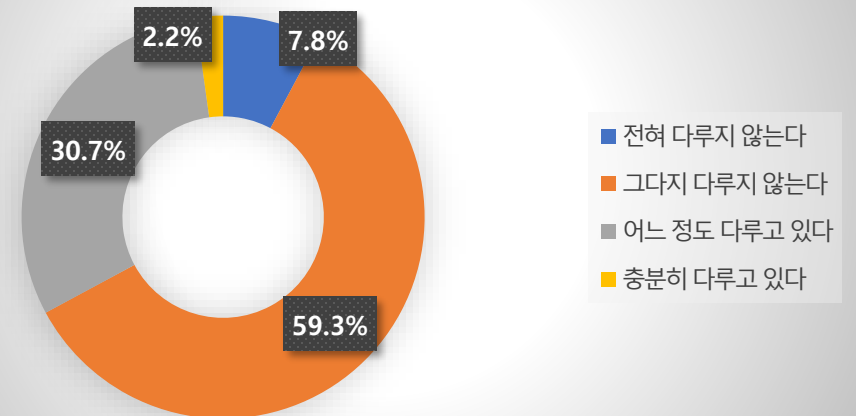


- ✓ 67.8%, 기후변화 보도에 문제 있다
- ✓ 63.4%,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피해의 심각성, 잘 다루는 편
- ✓ 67.1%, 기후변화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해결방안, 잘 다루지 못하는 편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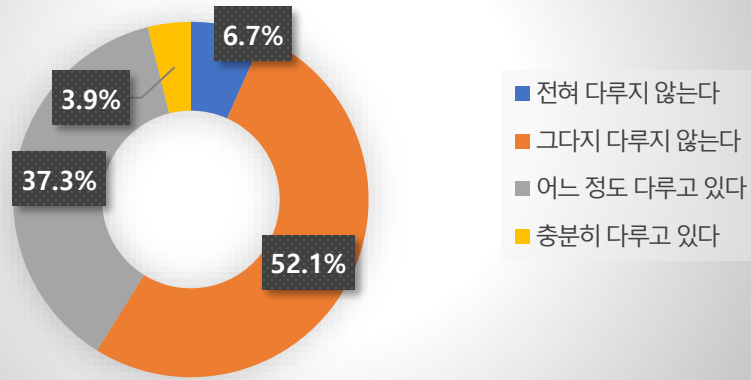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다룬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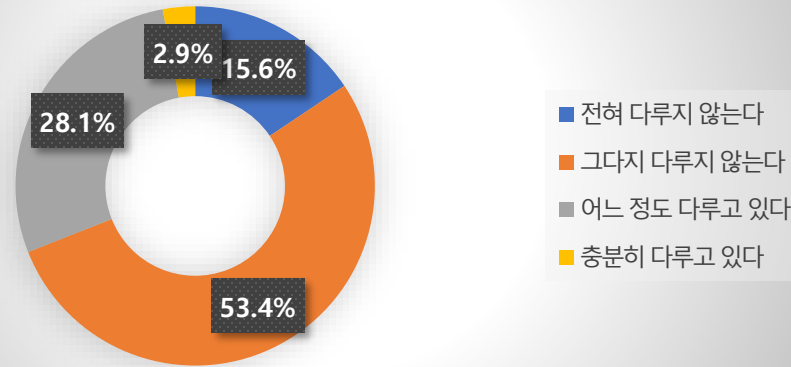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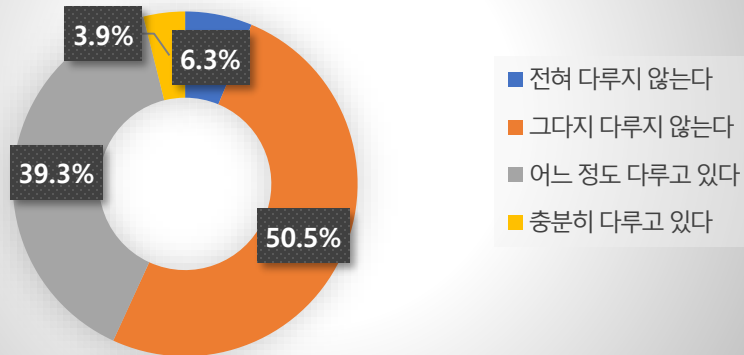
개개인이 기후위기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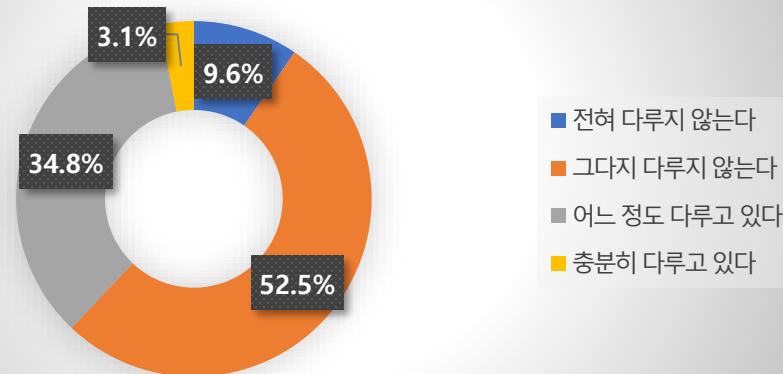
기후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이 어디 있는지 규명하는 기사



기후위기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는 기사



기후변화 관련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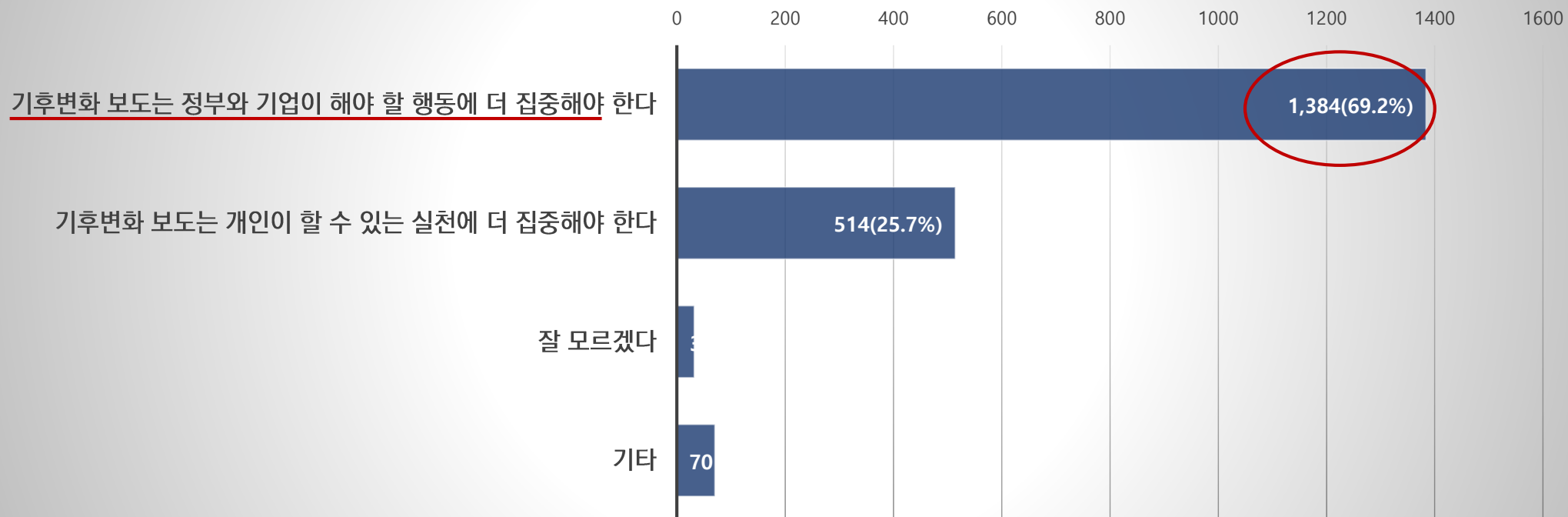


- ✓ 58.8%,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방안,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
- ✓ 56.8%, 기후위기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는 기사, 찾기 어렵다
- ✓ 69%, 기후변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 잘 다루지 않는다
- ✓ 62.1%, 기후변화 관련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의 기사, 잘 다루지 않는다



기후변화 보도의 방향

(n=2,000)





❖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

- 대다수 수용자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
- 기후위기 관련 정보, 주로 포털, 언론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통해 습득
- 기후위기에 대한 일상적 대응 방안+ 구체적인 상황과 쟁점 이해가 목적
- 68%, 기후변화 보도에 문제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피해의 심각성은 잘 다루는 편
- 제도적·정책적 해결방안, 일상적 대응 실천방안, 기후변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사는 찾기 어려워
- 기후변화 보도는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행동에 더 집중해야
- 기후변화 보도에 더 많은 공간 할애하고, 가시성 높일 것



❖ MZ 세대가 원하는 기후변화 보도

- 우리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과 기후위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교차하는지 밀착 취재한 보도
- 문제 제기나 공포감 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보도
- 훨씬 더 세분화된 전문가를 찾아내 이들의 얘기를 들려주는 보도
-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충분한 설명을 곁들이는 보도
-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하는 기사
-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협의 정도가 사람 혹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사



❖ 좋은 기후변화 보도를 위한 제언

- 지금, 우리의 문제로 보도할 것
- 공포심·죄책감 대신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접근할 것
- 스토리텔링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올바른 관점을 가질 것
- 전담 조직을 두고 전문성을 키울 것
- 기후보도를 환경의 틀에 가두지 말 것
- 지나치게 정치적 공방으로 다루지 말 것
- 취재원을 세분화 할 것
- 언론 스스로 '해결'의 일부가 될 것

감사합니다.

